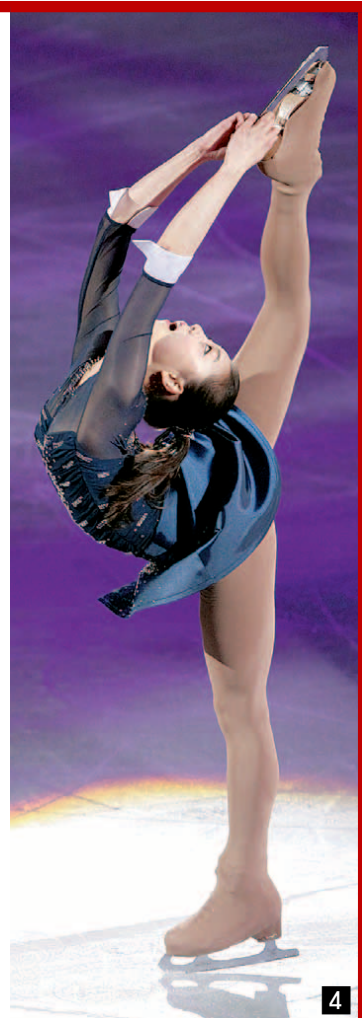




연아의, 연아에 의한, 연아를 위한...김연아 쇼!

1 주황색 치마를 입은 김연아(21·고려대)가 은반 위에 등장하자 뜨거운 함성이 쏟아졌다. 이어 피겨여왕은 오프닝공연에서 나팔바지의 스테판 람비엘과 짝을 이뤄 흥겨운 댄스를 선보였다. 화려한 조명아래 둘은 더 빛났다. 6일 잠실실내체육관 특설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올댓스케이팅 스프링 2011'에서 김연아를 비롯한 출연진 11팀은 70·80년대 유행했던 디스코 음악 메들리에 맞춰 관객과 하나 되는 무대를 꾸몄다.

2 1부 마지막순서, 김연아는 모스크바세계선수권에서 연기했던 쇼트프로그램 '지젤'을 국내팬들에게 선보였다. 모든 관중들은 가녀린 지젤의 모습에 숨을 죽였다.

3 피겨꿈나무 김해진도 가세했다. 소녀는 성인 못지 않은 도넛스판실력을 뽐냈다.

4 미래의 피겨요정을 꿈꾸는 객민정 역시 유연한 비엘만 스피드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장날 | 박희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seven7sola

편집 | 양혜진 기자 yhj@donga.com 트위터@e_joyful

또 버디쇼...역시 김경태!

매경오픈 2라운드 9언더파로 단독 선두
 강경남·조민규는 공동2위...김대현 6위

2010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상금왕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가 원아시아투어 GS칼텍스 매경오픈(총상금 10억원) 2라운드에서 단독 1위로 올라섰다.

김경태는 6일 경기도 성남 남서울 골프장(파72·6964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보기 2개와 버디 6개로 4타를 줄여 4언더파 68타(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를 쳤다.

출발은 불안했다. 2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았지만, 3번홀(파3)과 5번홀(파4)에서 연속 보기를 하며 주춤했다. 7번홀(파3)에서 버디를 기록하며 전반을 이븐파로 마친 김경태는 후반들어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14번홀(파5)부터 16번홀(파4)까지 세 홀 연속 버디를 잡아낸 데 이어 18번홀(파4) 역시 버디로 마무리하며 우승 후보다운 저력을 과시했다.

김경태는 국가대표 시절 남서울CC에서 훈련해온 덕분에 매경오픈에서 특히 강하다. 2003년(5위)과 2005년(4위)에 아마추어 신분으로 두 번이나 톱10에 올랐다.

프로데뷔 첫 해인 2007년에는 우승을 거머쥐었고 2008년에는 6위, 2009년에는 13위, 지난해에는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특히 프로데뷔 이후 이 대회에서 오버파를 기록한 것

은 2008년 최종 4라운드(74타) 뿐이라는 것도 김경태가 남서울CC 코스를 얼마나 훤히 꿰뚫고 있는지를 증명해 준다.

김경태의 뒤를 이어 강경남(28·우리투자증권)과 조민규(23)가 중간합계 7언더파 137타로 2타차 공동 2위를 기록했다. 강경남은 보기는 2개로 막고 버디 8개를 몰아쳐 6언더파 66타로 데일리베스트를 기록하며 순위를 수직 상승시켰다.

디펜딩 챔피언 김대현(23·하이트)도 타이틀 방어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공동 18위로 출발한 김대현은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폭발적인 장타를 앞세운 적극적인 코스 공략을 통해 보기는 2개로 막고 버디 3개를 잡아내며 3타를 줄여 중간합계 5언더파 139타로 선두와 4타차 공동 6위에 포진했다.

이날 간간이 내린 비 때문에 페어웨이 상태와 그린 스피드가 시시각각 변하면서 18번홀(파4)을 보기로 마감하는 등 다소 고전하기는 했지만 침착한 플레이로 위기를 넘기며 상위권에 올라 남은 3, 4라운드에서의 반전을 예고했다.

드라이버샷 IP지점(티샷이 떨어지는 지점)에 설치된 장애물이 의미가 없어질만큼 가공할 장타력을 갖춘 김대현과 컴퓨터처럼 정교한 아이언 샷으로 코스를 공략하는 김경태. 둘 중 어느 선수가 최종라운드에서 웃게 될지 골프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남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serenowon



김경태가 6일 열린 GS칼텍스 매경오픈 2라운드 경기 도중 아이언 샷을 한 뒤 볼을 바라보고 있다.
 성남 | AFP연합뉴스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9일 문경서 팡파르

동아일보사와 스포츠동아가 주최하고 문경시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제89회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가 9일부터 14일까지 경북 문경에서 열린다. 1923년, '조선여자 정구대회'로 출발한 이 대회는 단일종목 대회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특히, 여성만이 참가한 최초의 스포츠이벤트로 개회기 여권신장에도 크게 기여했다. 2006년 84회 대회를 기점으로 남자일반부가 추가됐으며, 2007년부터는 남자 초등·중등·고등·대학부까지 합류해 남녀 10개부가 참가하는 국내 제일의 정구대회로 변모했다. 2007년부터 이 대회를 개최한 문경시는 올해 세계정구선수권(10월27일~11월1일)을 유치하며 한국정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80여개 팀, 62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체면구긴 태권도...한국, 세계선수권 2위

한국 태권도가 6일 경북 경주에서 막을 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합 1위를 놓쳤다. 여자부는 46kg급에서 김소희가 값싸게 금메달을 따내는 등, 중국을 넘고 2년 만에 1위를 되찾았지만 남자부가 최초로 종합우승을 놓친 탓에 이란에 밀리고 말았다. 남자부는 6일 5체급에서 결승에 진출했지만, 남자 63kg급의 이대훈(용인대), 최종량급인 +87kg급의 조철호(한국체대)만 금메달을 땀다. 이로써 남녀 8체급씩 16개 전 체급에 출전한 한국은 남자가 금 2개와 은 2개, 여자가 금 1개, 은 2개, 동 3개를 얻고 대회를 마쳤다. 한국은 1973년부터 시작된 남자부에서는 2009년 코펜하겐 대회까지 19회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지만 이번에 처음 정상에서 내려왔다. 점수로 순위를 매긴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61점에 그쳐 73점을 획득한 이란에 밀려 종합 2위로 마쳤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된 이유를 전자호구 시스템에 대한 적응 부족에서 찾고 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matsri21

■ 바로 잡습니다

5월 6일자 13면 <필드에서 만난 사람> 기사 중 경남 순천을 전남 순천으로 바로잡습니다.

오진혁·정다소미, 양궁월드컵 혼성부 결승행

오진혁(30·농수산식품)과 정다소미(21·경희대)가 6일(한국시간) 크로아티아 포레치에서 열린 국제양궁연맹(FITA) 1차 월드컵 혼성부 준결승에서 폴란드를 144-143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은메달을 확보한 한국은 8일 미국과 금메달을 다툰다.

박태환, 내일 일시 귀국...14일 다시 호주행

박태환(22·단국대)이 호주에서 진행한 올시즌 두 번째 전지훈련을 마치고 8일 일시 귀국한다. 2월부터 약 50일 동안 호주 브리즈번에서 전담 지도자인 마이클 볼(호주) 코치의 지휘 아래 훈련했던 박태환은 4월9일 다시 호주로 떠나 한 달간 담금질을 이어왔다. 박태환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14일 다시 호주로 떠난다.

동아시아대회 출전 농구대표팀 예비명단 24명 발표

KBL과 대한농구협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가대표팀협의회는 6일, 6월10~15일 중국 난징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선수권에 출전할 예비선수 2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김주성(동부), 하승진(KOC), 박상오(KT) 등이 포함됐다. 이들 24명 중 12명이 최종국가대표로 선발돼 16일부터 대륙선수촌에서 훈련을 시작한다.

대구세계육상대회 202개국 출전...사상최대 규모

대구 세계육상조직위원회는 6일 "4월26일 세계 각국으로부터 예비 엔트리를 받은 결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가맹국 212개 나라 중 202개국이 출전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를 능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올림픽축구대표팀 평가전 상대 오만 확정

올림픽축구대표팀의 평가전 상대가 이라크에서 오만으로 변경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만축구협회와 오는 6월 1일 오후 7시 강릉에서 올림픽대표팀 친선경기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U-20 이종호 부상...남은 경기 출장 불투명

수원컵에 출전중인 U-20 대표팀 공격수 이종호(전남)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다. U-20 대표팀 주치의 은승표 코리아 정형외과 스포츠메디슨센터 원장은 "이종호의 햄스트링(허벅지 뒤쪽 근육) 부상 범위가 넓어 남은 2경기 출장 여부는 하루를 쉬 뒤 정밀검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이종호는 5일 나이지리아전에서 교체로 출전한지 6분 만에 허벅지 뒤쪽 근육에 통증을 호소해 교체 아웃됐다.

휴~

위드도 긴급체포 해프닝

차량절도범으로 오인받아



스포츠전문채널 ESPN은 미국프로 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스 위드(35·피츠버그·사진)가 도난 차량을 이용했다는 오해를 받아 미국 경찰에 체포당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6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위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여성과 함께 이 여성 소유의 차량을 타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수갑이 채워졌다. 이 차량이 도난 차량인 것으로 오해 받았기 때문.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이 여성은 지난달 경찰에 자신의 차량을 잃어버렸다고 도난 신고를 한 뒤 차를 찾았으나 철회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량이 여전히 도난 차량으로 분류돼 있던 탓에 위드와 동승하려면 여성이 모두 차량 절도범으로 오인된 셈. 사실 확인 뒤 위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경찰은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겼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 순회보형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필 제2011-1156호 (2011.4.25)

트렁크 속이 아수라장? 애먹지 말고 **에르고 ERGO** 

5,6월에 자동차보험 만기라면 **지금이야 기회!** 

아래 번호로 보험료만 알아봐도 **트렁크 정리함을 주니까!**
 >기간: 2011년 6월 30일까지 (매일 선착순 200명/신규고객에 한함)

첨두참! [한 전화 번호] **1544-1666** | **ERGO** | 에르고다음다이렉트*